

#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업체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sup>1)</sup>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 목 차 〉

□ 말레이시아 포트클랑, 2016년 처리능력 포화 전망, 신규 컨 터미널 개발 추진 -----	2
□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심수항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시행 예정 -----	3
□ 필리핀, 마닐라 북항 개발 설계 승인 -----	4
□ APM 터미널사, 스웨덴 최대 '컨' 터미널 운영권 확보 -----	5

1) 연락처: 송주미 책임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김홍매 전문연구원(02-2105-2828, hisgrace@kmi.re.kr),  
황현주 연구원(02-2105-2897, julya7@kmi.re.kr), 전해경 연구원(02-2105-2982, saei@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말레이시아 포트클랑, 2016년 처리능력 포화 전망,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추진

- 말레이시아 포트클랑 항만공사(Port Klang Authority; PKA)가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컨테이너 개발 추진
  - PKA의 Teh Kim Poohas 회장은 포트클랑이 2016년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제3의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이 필요하며 내년인 2012년에 승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의 위치는 Westport 인근이 될 것이며, PKA의 관리감독을 받고 민간에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음
  -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은 민간투자자로 개발될 예정이나 Northport 및 Westport의 참여여부는 결정된 바 없으며, 구체적인 위치 및 시설능력 등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포트클랑은 벌크화물을 처리하는 Southport,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Northport 및 Westport로 구성
  - 포트클랑의 2010년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887만 TEU이며, 올해에는 8.2%가 증가하여 약 960만 TEU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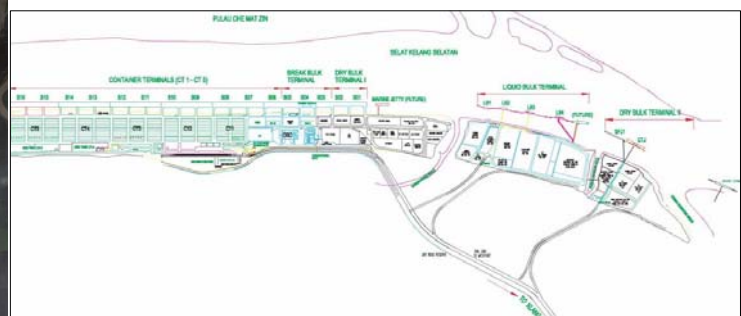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 포트클랑 위치 >



< 포트클랑 Northport 배치도 >



< 포트클랑 Westport 배치도 >



자료 : [www.portstrategy.com](http://www.portstrategy.com) / [www.worldcargonews.com](http://www.worldcargonews.com), 2011.10.10.

송주미 책임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mailto:jmsong@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러시아 칼리닌그라드, 심수항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시행 예정

- 러시아 중앙정부와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주정부는 칼리닌그라드 심수항 개발계획에 착수하기로 합의
  - 러시아 교통장관 Igort Levitin은 칼리닌그라드에 심수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에 15억 루블(4,600만 달러)의 정부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칼리닌그라드항 근처의 상트페테르부르크(St.petersburg)항 및 우스티-루가(Ust-Luga)항이 겨울에 결빙됨에 따라 현재 겨울철에 적합한 항만으로 발가 베이(Balga Bay)의 몇 개 지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 심수항의 수심은 18m로 계획하고 있음
-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칼리닌그라드항은 발트해 연안 러시아 항만 중 유일한 부동항으로 서유럽의 해상 관문이며, 러시아 내륙지역으로 통하는 최단 운송루트
  - 주변 해외 주요 도시들인 빌뉴스(Vilnius), 리가(Riga), 민스크(Minsk), 바르샤바(Warsaw), 베를린(Berlin), 코펜하겐(Copenhagen), 스톡홀름(Stockholm)과는 평균 400km~650km 떨어져 있음
  - 주요 수입품목과 수출품목은 각각 어류제품, 식품, 컨테이너 화물과 목재, 펄프, 압연금속, 고철, 곡물, 석탄, 코크스, 석유, 화학비료 등이며, 연간 1,538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음
  - 칼리닌그라드는 1993년 자유무역지대를 지정, 2005년 경제특구로 거듭났으며, 외국산 물품의 수입관세, 러시아 본토로 수출하는 칼리닌그라드산 제품의 수출관세가 면제됨

&lt; Kaliningrad 위치 &gt;



&lt; Kalinigrad 지역 &gt;



자료: [www.sandandgravel.com](http://www.sandandgravel.com), 2011.10.11; [www.portguide.com](http://www.portguide.com).

김홍매 전문연구원(☎ 02-2105-2828, [hisgrace@kmi.re.kr](mailto:hisgrace@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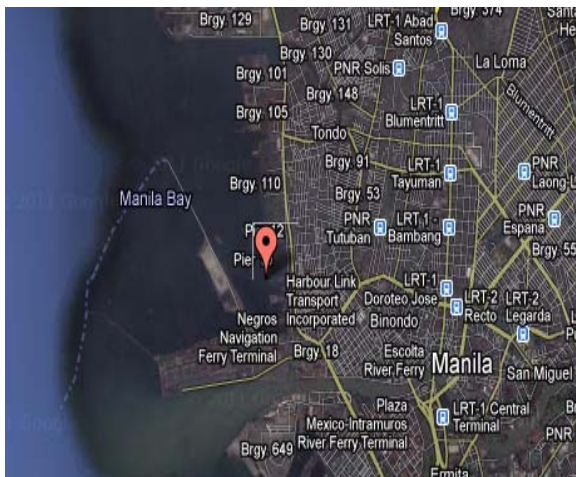


# KMI 국제물류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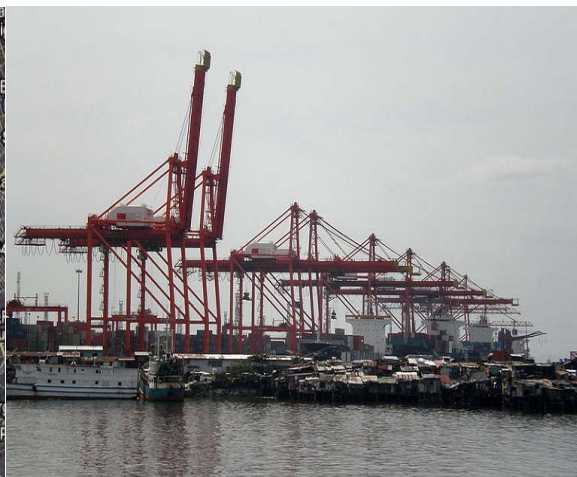
## □ 필리핀, 마닐라 북항 개발 설계 승인

- 필리핀항만공사(PPA, Philippine Ports Authority)는 MNHPI(Manila North Harbour Port, Inc)사가 제출한 마닐라 북항 세부개발 설계를 승인
  - 제1여객터미널의 완공일을 2013년 11월로 승인하였으며 이는 당초 계획된 완공일보다 8개월 늦어진 것임
  - PPA 관계자는 2012년까지 프로젝트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금번 승인된 설계부분은 제1터미널로 다른 지역은 아직 보류 중이라고 함
- Harbour Centre Port Terminals Inc, San Miguel Corp, MNHPI사 간 조인트벤처는 마닐라 북항 개발을 위해 145억P<sup>1)</sup> 규모의 '컨'터미널, 일반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을 개발할 예정
  - 이 프로젝트의 1단계는 6년 이상 실시될 것이며 첫 1년간 크레인 레일에 필요한 2개의 선석 및 컨테이너 야드 포장을 완료 후 운영자는 하버 크레인과 지원 장비를 조달할 계획임
  - 지금까지 조인트벤처는 10억P를 투자하였으며 그중 6억5천만P 규모의 하버크레인과 장비를 구입하였음
  - 또 다른 10억P는 임시 여객터미널 및 '컨'터미널의 일부 확장을 계획하고 있음
- MNHPI에 의하면 처리능력이 120만~150만 TEU인 마닐라 북항이 2010년에 630만 TEU를 처리하였으며 올해 780만 TEU를 처리할 것으로 전망

< Manila 북항 위치 >



< Manila 북항 전경 >



자료: www.dredgingtoday.com, 2011.10.12.

황현주 연구원(☎ 02-2105-2897, julya7@kmi.re.kr)

1) 1 페소 = 0.02\$ (2011.11.16 기준)

# KMI 국제물류위클리

## □ APM 터미널사, 스웨덴 최대 '컨' 터미널 운영권 확보

- APM 터미널사는 지난 9월 7일 스웨덴 고텐부르크(Gothenburg)항의 스칸디아(Skandia) '컨' 터미널 운영권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5년 운영계약을 체결
  - APM 터미널사는 북유럽 운송허브로서 고텐부르크항의 경쟁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첫 5년간 1억 1,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대부분은 인프라 개선에 사용될 예정임
  - 스칸디아 '컨'터미널에 대한 관리 및 운영권은 2012년 1분기에 APM 터미널사로 양도될 예정임
- APM 터미널사 유럽지부 CEO Martin Poulsen, 고텐부르크항의 중추적 역할 기대
  - APM 터미널사는 고텐부르크 심수항의 지리적 강점을 유지하면서 스웨덴의 무역통로와 경제 발전 도모를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일류 항만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밝힘
  - 또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의 성공적인 예가 될 수 있도록 스웨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함
- 고텐부르크항은 지난 2년간 Ro/Ro, 자동차 및 컨테이너 터미널의 민영화를 준비해 왔으며, 민영화가 터미널에 새로운 투자와 경쟁력, 그리고 물동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고텐부르크 항만청장은 APM 터미널사의 투자를 통해 스웨덴 국제항만으로서 고텐부르크항의 역할을 기대하며 APM 터미널사의 전문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로 지역 및 국가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함
  - 고텐부르크항은 고텐부르크시 소유이나 민영화를 통해 항만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며, 실제 운영은 항만공사 및 외부 운영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될 예정임

< Gothenburg항 위치 >



< Gothenburg항 전경 >



자료: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1.10.12

전혜경 연구원(☎ 02-2105-2982, saeii@kmi.re.kr)

## KMI 국제물류위클리

##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